

평화씨!

원 작 : 아리스토파네스

개 작 : 이상우

연 출 : 강혜정

기 획 : 김성은

일 시 : 2004년 6월 3일 • 4일(오후6시30분)

5일(오후2시, 6시)

장 소 : 승실대학교 노천극장



((모시는 글



극회장
최연경(정통98)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극예술 연구회 극회장입니다. 먼저, 제 68회 숭대극회 봄정기공연을 관람하려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오늘,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소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노력과 희생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연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연극만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쏟아붇습니다. 전 연극을 한송이 꽃을 피우기 위한 고뇌의 시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긴 고뇌의 시간을 벗어나, 아름다운 꽃송이가 되어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꺾지 마시고 꽃 송이 송이 마다 배어나는 그 향기에 취하시길 바라며, 이번 공연을 위해 노력한 연출, 기획, 캐스트, 그밖의 스텝들에게도 많은 박수 바랍니다. 올 한해도 많이많이 행복하세요^^

((기획의 변



기획
김성은(국문03)

아래를 내려본다
허벅지 두 손 주렁주렁 달렸다
영차, 내가 눈만 감고 도마위에 누웠다
"내장 손질해 주시구요." 그러면 바쁘셔라!
칼을 든 사내가 자주 나타나 사탕알같은 내것을 내어간다
탁월한 고등어 생선
울지말고
그림자 아가미 구기네
우리 고등어 선생

(2004.05.11)

숭대극회 68회 봄 정기공연을 축하하며 + + + + + + + + + + + + +

심정순(숭실대 교수, 연극평론가)

우선 숭대극회의 <평화씨> 공연을 축하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평화'라는 말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나라 안팎이 여러가지 일로 시끌스럽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평화,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가 그립습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은 고대 그리스 시절로도 거슬러가는 인류보편의 욕망인 듯,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리시스트라테>라는 작품에서 전쟁을 끝장내는 기발한 묘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쟁을 일으키는 호전성, 폭력 등을 전통 가부장적 남성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또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평화와 사랑의 특질을 여성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자연적인 모성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의 폭력성과 우리 삶의 환경을 파괴하는 전쟁의 생명 파괴성을 거부하고 나섭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기본 맥락은 요즘 말하는 '환경 폐미니즘'과도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숭대극회에서는 상기한 의미의 원작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공연<평화씨>를 무대에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 신선한 평화와 생명사랑의 메시지가 숭실학우들의 마음속에 멀리 멀리까지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연출의 변



연출
강혜정(독문00)

처음에 숭대극회라는 이름 아래 올라가는 공연의 연출자로서 어떤 작품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일단 선택의 폭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그려진 내용과 재미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 심정순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작품들 중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리시스트라테'가 그 두 가지 조건에 딱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달에 걸쳐 연습 연출을 하면서 극회인들과 배려, 믿음을 공유하고 싶었고, 특히, 캐스트의 대부분인 신입생들에게 숭대극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비롯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학기에 극회인들과 함께 했다는 것.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것으로 아주 행복했습니다.

공연이 올라가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숭대 극회 제 68회 봄 정기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대극회여! 영원하라!

기분이 마냥 좋기도 하다가 글방 올고 싶기도

작은 것에 가슴 두근거리며 설레어 하기도 하다가 금방 싫증을 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오른쪽에 사초기를 그렸습니다.

[View all posts by admin →](#)

www.wanfangdata.com.cn

— 11 —

『10호 복』 향토, 복 6기 향토 복』

을 놓아주시지 않을 수가 아닙니다.

극운에 이어 강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네가 그들을 아름아닌지 극회를 눈을 떠신다는 것



작가 연구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B.C. 445 ~ ?]

아테네 출생의 고대 그리스의 최고 희극 시인이다. 청·장년시절이 펠로폰네소스전쟁(BC 431~BC 404) 무렵이어서 그의 작품은 정치색이 짙다. 그는 전쟁으로 농지가 황폐해지자 고통 받는 농민의 입장에서 평화론을 주장하고, 수공업자충에서 갑자기 출세한 선동정치가를 즘오하며 당시 유행한 사상과 윤리를 풀자하였다.

BC 427년의 최초의 작품 『연회의 사람들』 이래, 시종 신식 철학, 소피스트, 신식 교육, 전쟁과 데마고그(선동 정치가)의 반대자로서 시사 문제를 계속 풍자하였다. 작품 제목은 44편이 알려져 있으나,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그 가운데 11편, 그 밖에 많은 단편이 있다. 시칠리아 원정 동안에 새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를 바라본 『새 Ornithes』(BC 414)의 멋진 꿈은, 다음해의 원정군 전멸이라는 비보로 무참히 깨지고, 여기서 시인은 오랜 전쟁에 지친 시민의 마음을, 즉 여성의 성적(性的) 거부에 의한 평화 요구의 획득이라는 외설적인 가면 속에 숨은 열렬한 평화 희구의 극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이 BC 411년의 『여자의 평화 Lysistrate』이다. 그의 희극은 평소에 억압되어 있는 폭력이나 저속성에 대한 시민들의 욕망을 무대 위에서 분출시켜 평화나 세상 변혁의 환상을 잠시나마 맛보게 하였고, 말장난과 기묘한 발상으로 웃음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소재를 찾아 궁리하였다고 자부하는 것처럼 작품마다 기발한 소재를 준비하였고 관객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극적 기교를 사용하였다. 그의 극에는 당돌한 요소도 많지만, 끝없는 상상력, 달콤한 리리시즘, 무진한 말, 흥소(哄笑)와 방자(放恣)는, 그를 당시 희극의 대표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작품줄거리

원작인 'Lysistrata(여자의 평화)'는 고대 그리스 희극시인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작품으로써 BC 411년 상연되었다. 펠로폰네소스전쟁이 일어난 뒤 20년 동안, 몇 차례 찾아온 평화에 대한 기대는 어긋나고, 아테네가 국운을 걸고 감행한 시칠리아섬 대원정(BC 415~BC 413)도 참패로 끝났다. 그러나 종전(終戰)의 움직임은커녕, 아테네가 더욱더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이 극은 썩어졌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을 전장에 보낸 뒤, 독수공방해야 하는 여자들이 내 편, 네 편 할 것 없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리시스템트라테(군대를 해산시키는 여자라는 뜻)의 지휘 아래 모여, 남자들이 전쟁을 끝내기 전까지는 부부생활을 거부하겠다는 섹스 스트라이크를 강행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이를 무산시키고자 하고 여자들 중에서도 이 결의를 배반하려는 자가 나타나지만, 결국 이 전술이 효과를 거두어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중지한다는 줄거리이다. 『평화씨』는 원작 '리시스템트라테'를 이상우씨가 개작한 작품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번 작품 『평화씨』는 1994년 1월 학전 소극장에서 〈아파트 리시스템트라테〉라는 제목으로 초연되었던 대본을 극단 차이무에서 부분 수정한 것이다. 이 연극의 극중 장소는 재활용품들이 쌓여있는 아파트의 지하실이다. 신문 꾸러미를 무대로, 폐가전제품을 무대장치로 삼아 평화씨를 비롯한 5명의 아파트 주부들(평화씨, 원복씨, 덕순씨, 경수씨, 혼아씨)이 「리시스템트라테」라는 연극을 연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작품의 구성은 크게 「리시스템트라테」를 연습하는 부분과, 남자들이 등장하여 그들과 대립하고 아줌마들 사이에 수다를 떠는 현실적인 부분이 교차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연습하는 부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남자들의 우둔함을 탓하며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과 가부장 사회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남성들 사이에 갈등이 그려지기도 하고, 현실로 돌아와 연극연습을 반해하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성들 – 경비, 파출부에서 나온 경찰, 남편들 – 과의 대립이 전개된다. 또한 중간 중간에 아줌마들의 수다 속에 통일, 여성의 역할, 정치 등등 무거운 소재들이 가볍게 펼쳐진다. 원작 「리시스템트라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없이 공연을 하는 해피 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일인 다역이라는 장치를 통해 현대와 고대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남성이 여성역할을 하는 등 웃음을 주기도 한다. 또한 중간 중간 대사나 행위를 통해 희극적 요소가 많이 보여 진다. 이상우씨가 내세우는 「생각은 깊게, 표현은 경쾌하게」라는 모토답게 관객들로 하여금 많은 웃음을 전해주지만 반면에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

CAST



경비 역
덕순씨 남편이 나인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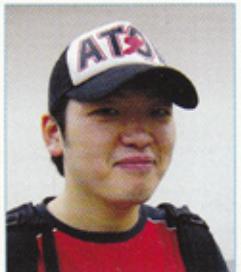
평화씨, 류씨스트라테 역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무엇을 원해요?
유리의 계단에 올라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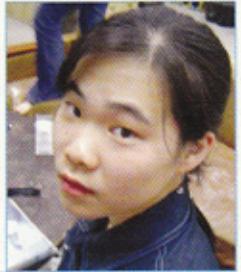
덕순씨, 보이오티아여인, 군인2, 여자2,
키네시아스장군아내, 스파르타밀사, 스파르타대표 역
나를 버리고 타인이 되어간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랑도 시작이다.



경찰, 현아씨 남편, 경수씨 남편 역
연애가 장난이야? 사랑한다.



윤대현(전기03)



경수씨, 클로니케 역
무엇인가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만들 수 있다
5월 3일 pm 9:30 at Born Heimer
나를 버리자.
새로운 나를 다시 만들기 위해!



정한길(컴공04)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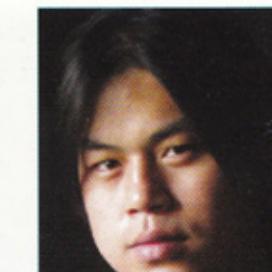
MAIN STAFF. 조명
이육재(섬유00)



MAIN STAFF. 음향
원지은(불문03)



무대감독
최연경(정통98)



무대장치
김영걸(정통98)



무대미술
윤장한(경제98)



무대미술
강대인(산공98)



분장
이경미(산공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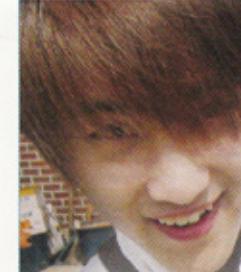
의상
이경우(국문99)



스폰
이미나(국제01)



안무
박지승(평교03)



진행
김구식(전기03)



소품
도현민(경통04)

안무 파포스(Pop.O.S)



연습 일지

*4월 12일 월요일

처음 서서 대본을 읽었다. 리액션까지 들어가면! 기대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극장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상상이 가지 않는다. 사진으로 본 대학극장은 극장분위기가 물씬 풍겼는데.. 학교앞 스폰을 나갔다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케익을 얻었다?

*4월 21일 수요일

우리가 얼마나 못했는지 공연날짜가 일주일 늦춰졌다! 어렵다 어려워.

“연기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집중하는가에 따라 연극의 흐름이 달라진다” 좋은 글을 읽었다. 요즘은 캐릭터가 잘 안잡혀서 속상한데다가 나 스스로에게 조차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다. 나는 과연 그녀를 알고 연기하는 걸까?

*4월 27일 화요일

극회실에 오니 냉장고가 두둥! 이번 공연 소품으로 쓸 냉장고다.

정말 어디서들 저렇게 구해오시는 걸까? 신기하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어디선가;

*5월 3일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덩달아 다들 센티하고 트레이닝복에서는 퀴퀴한 땀내가 난다!

이제 6월 3일까지는 딱 한달. 오늘 비는 잡념을 깨끗이 씻어주고 공연에 집중하게 할거라고. 다들 비를 감사하고, 파이팅 하자!

*5월 4일 화요일

캐스트변을 기획님께 제출했다. 모두들 고심했다. 그중 내가 가장 멋지게 쓴 것 같다.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 – 아침 7시까지 오느라 힘들어서 죽는줄 알았다. 내가 봄도 놀라울 따름이다. 새벽 5시부터 전화가 일곱번이나 왔다. 오늘 팩차기 35회.. 기록을 세웠다

*5월 15일 토요일

음향담당이신 지은누나 실력이 좋으시다. 엔딩음악이 끝내준다. 참! 극회실이 좋아졌다. 컴퓨터, DVD, TV, 냉장고까지! 한마디로 짱이다. 우리의 연기는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

*5월 16일 일요일

한길이와 고운이가 어디서 치마를 이상한걸 구해와서 입고 연기했다. 나는 부채를 들었다. 소품을 사용하니 한결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나만의 생각ㅋㅋ) 이제 정말 공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리아리!!

*5월 17일 월요일

성년의 날이다. 난 군대에서 성년의 날을 보낼 것 같다. 언제 진짜 어른이 될지. 군대나 갔다와야지! 장미 그리기가 쉽지 않다. 이건 장미다.

84년생 여러분 성년이 된것을 축하하오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출소인국 “쥘세영봉나풀레옹의말로” “대비국 노예의 탈”		
	1923년 7/7,21	전통극 “우리의 흥” “기계인간” “동백꽃” “십년후” “업무경년회주관”		
	192년 7/28,29	“소인연극” “교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화공으로 돌아오다” 활영식 作	이번	전진호
2	1966년 10/28	“Our Town” Thornton Wilder 作	이태주	
3	1969년 10/10	“의자들” E. 아오네스고 作	고봉인	
4	1969년 10/28,29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作	고봉인	
5	1970년 5/15	“聖者와 성물” John Millington Synge 作	한명재	
6	1970년 10/28,29	“승부의 芳來” 사무엘 베카트 作	김양기	
7	1971년 5/26,27,28,31 6/1,2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作 “겁날록 삶화” 음조병 作 “광복해독에 대하여” 안은서 作 “황금단지” 후진우 팀 作 “교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카트 作	정종희 주문서 한명재 유근영 차현재	
8	1971년 11/4,5,11	“자격증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作	차현재	
9	1972년 5/25,26,27	“생활파티” H. 펀더 作	한명재	
10	1973년 5/21,22,23	“미시시피의 결혼” F.우센아트 作	고봉인	
11	1973년 10/25,26,27	“밥” H. 펀더 作 “기도” (소극장) F.아라발 作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25,26,30	“정의의 사랑들” A.제위 作	정용화	
13	1975년 6/9,10,12,13	“체움터의 산책” “도스토에프스카는 이쁨의 거북이”	김충수 안홍순	
14	1975년 10/29,30,31	“비더한과 항초벌” Max Frish 作	김기율 안홍순	
15	1976년 6/1,2,3	“인터넷” 창 블로드 밴 이탈리 作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26,27,28	“봄” 창 블로드 밴 이탈리 作	김영숙	
17	1977년 6/15,16,17,18	“EQUUS” 피터웨퍼 作	박경식 김영숙	
18	1977년 10/10,11,12,13	“EQUUS” 피터웨퍼 作	방영술 김영숙	
19	1978년 6/5,6	“Counter Point” Olov Hartman 作	방영술 김영숙	
20	1978년 10/24	“EQUUS” 피터웨퍼 作 (대학극극제참가)	안홍기 김영숙	
21	1979년 6/16,19	“한강2979” 김영숙 作	평재호 이봉숙	
22	1979년 9/29,10/2	“초본” 오태석 作	이정일 황경순	
23	1980년 11/5,6	“아니, 이 생생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글리크 作	임세행 박학경	
24	1981년 6/12,13	“노부인의 방문” F.위튼아트 作	이종규 황경순	
25	1981년 11/12,13,14	“달맞이 꽃” 김병용 作	전석근 황경순	
26	1982년 5/12,13	“끼리끼리” A. 제위 作	음태웅 지숙	
27	1982년 10/7,8	“해도 무 락스” M.크리스토퍼 作	전희식 황경순	
28	1983년 6/20,21	“미시시피의 결혼” F.위튼아트 作	전희식 김영숙	
29	1983년 10/7,8	“트리비” John Bowen 作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24,25,26	“도가니(The Crucible)” A.Miller 作	이종규 임세행	모재환
31	1984년 10/11,12,13	“연전소” John Stoltenberg 作	차세운 이봉섭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32	1985년 5/9,10,11	“빈민들” John Stoltenberg 作	김상현	이봉섭
33	1985년 11/21,22,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판니 고레스키 作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4,5,6	“EQUUS” 피터 웨퍼 作	허성무	하승민
35	1986년 9/11,12,13	“코뿔소” E. 아오네스코 作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3,4,5	“한 여름밤의 꿈” by W. Shakespeare 作	권형진 이준석	오정열
37	1987년 9/10,11,12	“오늘” A. 제위 作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2,3,4	“세 번은 험난한 세 번은 길거” 이어령 作	이충일	오정열
39	1988년 10/6,7,8	“안내되니 못내되니” by Darío Fo 作	경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26,27	“봄내” 윤조병 作	천승범	안전호
41	1989년 10/10, 11, 18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作	오정열	이번
42	1990년 5/24, 25, 26	“안디고네” 정 어누이 作	손재수	이준석
43	1990년 8/30, 31, 9/1	“한국현대기” 황석영 作	천승범	이영민
44	1991년 9/5, 6, 7	“생을 파티” H. 펀더 作	남재우	권승해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 作	왕현중	권형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들을 불렀다” 김상렬 作	임경희 정현용	홍은영
47	1992년 9/17, 18, 19	“공관의 여수” 김자희 作	홍석환	송근호
48	1993년 5/20, 21, 22	“제시 럭시” by A. Miller 作	황명식	박현상
49	1993년 10/21, 22, 23	“혹시 럭시” 김경수 作	소정호	박현상
50	1994년 5/26, 27, 28	“굿 닥터” 날 사이먼 作	정석용	소정호
51	1994년 9/29, 30, 10/1	“한디고네” 소모풀레스 作	소정호	박현상
52	1995년 5/25, 26, 27	“상자속의 여자” 김윤미 作	현승복	류성환
53	1995년 11/26, 27, 28	“나의 친밀 오래지 내부” JM. 바스콘셀로스 作	김은경	남재우
54	1996년 3/7, 8, 9	“자살” 김현숙 作	한석용	송미라
55	1996년 9/5, 6, 7	“독일이라는 이름의 전쟁” 트네시 휴리엄TM 作	조재호	이충일
56	1997년 3/13, 14, 15	“우리 블네” 손은 활터 作	신하영	서수경
57	1997년 10/8, 9, 16, 17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作	임세행	평동화
58	1998년 3/18, 19, 20	“살한 놀이” by E. 아오네스코 作	조재호	권내리 이정민
59	1998년 11/26, 27, 28	“불고기의 죽음” 유대리 作	윤정한	조재호
60	1999년 9/2, 3, 4	“세상 보기” 이정원 作	이정원	
61	2000년 5/4, 5, 6	“아름다운 살인” 장진 作	이은재	이경희
62	2000년 8/31, 9/1, 2	“소나기” 황순원 作	김귀하	박경근
63	2001년 3/29, 30, 31	“인간에 대한 예의” 서정훈 作	이복재	서정훈
64	2001년 9/6, 7, 8	“내려보다 돌아가다” 김희진 作	서정우	김희진
65	2002년 3/13, 14, 15	“젊은 브로드웨이의 술집” 고민 作	김영걸	김영진
66	2003년 3/6, 7, 8	“복수를 통해 서면 알수점들이 보인다” 김경수 作	이미나	윤정한
67	2003년 9/4, 5, 6	“고도를 기다리다보면?” 사무엘 베카트 作	김성은	최연경

신입생환영공연 연보

회	공연 일시	작품명	연출	기획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품" ■■■, Aning 作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복과 여인" 이강택 作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문대성 作	안홍순	전경호
4	1981년 3.30., 31.	"꽃" 이강택 作	정재호	한철
5	1982년 3.24., 25.	"ARIA DA CAPO" E.St. V.Millay 作	오세환	이영환
6	1983년 4.16.	"잉글리쉬 커는 당나귀 커" 김용학 作	이용섭	최시영
7	1984년 3.8., 9.	"블랙 코데타" 피터 세핀 作	홍이식	전희식
8	1985년 7.20.	"개인의 소공간" N. Horald 作	김인보	차세훈
9	1986년 3.17., 18., 19.	"ARIA DA CAPO" E.St. V.Millay 作	허승민	이영민
10	1987년 3.12., 13., 14.	"인형의 집" 헨리 입센 作	김경은 위성신	이길영
11	1987년 3.12., 13., 14.	"더러운 손" J.P. 샤르트르 作	박경근	백윤현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 作	황금실	천승범
13	1989년 3.23., 24., 25.	"특인 수녀를 위한 진혼곡" A. Casus 作	박경근	홍석태

"승대극회 제 68회 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승실대학교극예술연구회 동문 일동-

공연에 도움을 주신 분들

회	공연일시	작품명	연출	기획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otoh Strauß 作	박혜숙 백로경	이영인 안상준
15	1991년 3.7., 8., 9.	"노크 노크" 줄스 파이퍼 作	이병준	정현웅
16	1992년 5.28., 29., 30.	"콩 먹고 물 마시고" 이근상 作	양현준	김상경
17	1993년 3.11., 12., 13.	"메두사" George Kaiser 作	박원상	소장호
18	1994년 3.10., 11., 12.	"어린 왕자" 쥘리에트리 作	홍석환	이영숙
19	1995년 3.9., 10., 11.	"봄날" 이강택 作	정석율	양영호
20	1996년 5.30., 31., 6.1.	"울어라 맷고동아" 성준기 作	김철근	정재춘
21	1997년 5.29., 30., 31.	"로풀루스대왕" F. 위廉미트 作	정석율	박정자
22	1998년 6.5., 6., 7.	"결혼/아풀로" 이강택 作	류민주	강길호 안병진
23	1999년 6.3., 4., 5.	"자매" "리투아니아"	권내리	홍신혁
24	2000년 11.16., 17., 18.	"도덕적 도록" Dario Fo 作	광길호	정영진
25	2002년 5.30., 31., 6.1.	"노부인의 방문" F. 위廉미트 作	서점우	김혜정
26	2003년 5.29., 30., 31.	"택시드라이버" 장진 作	한주영	김종택

어쭈구리

-승실대정문 건너편-

강남시장의 선두주자

대림스넥

Buy the way

승실대입구 삼거리

Guess 당구장

(02) 817-7942 승실대(구)정문 건너편

새벽주가 맛있는 집

Ha-O

원초당 숯불갈비

승실대입구 삼거리

동학(전통주점)

● 승실대입구 삼거리 816-0319 ●

Look&Look 안경점

승실대입구 삼거리 베스킨라빈스 옆

Music Bar NAMU (Live Music)

(02) 821-4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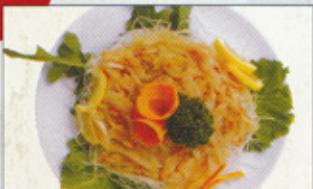
승실대입구 삼거리 바이더웨이 지하

싱싱함이 머무는 이곳~

동해수산물 직판장

별미

동해수산 스페셜



set1 산오징어 + 명게 + 해삼 ₩ 20,000



set2 광어(우럭) + 산오징어 + 개불 ₩ 30,000

set3 광어(우럭) + 해삼 + 명게 ₩ 30,000

찾아오는 길

승실대

봉천동고개 →

동해수산물 직판장

우리은행

100M

연중무휴
포장배달전문

(02)816-8814/816-8817